

포천지역 축산발전의 동반자 포천축협 '미트빌'을 찾아서

서울지소포천출장소장조남욱



(조합장 양기원)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체리 254 3번지에 위치한 포천축협의 육가공 공장 '미트빌'은 지난 7월부터 야심찬 도약의 한 발자국을 내딛었다. 3년전부터 시작한 사료사업에서는 '마홍촌'의 브랜드를 사용하였지만, 이번 육가공사업에서는 '미트빌'이란 브랜드가 새로이 탄생한 것이다.



미트빌은 포천축협 축산물 유통사업의 대표적 상징물로 전체적인 이미

지는 하트와 스마일을 연상케 하는 엠블럼으로 포천축협이 정성스럽게 생산한 고품질 생산물과 제품의 만족을 통한 고객의 행복을 상징하고 있으며, 고객과 더불어 발전하는 포천축협의 철학을 내포하는 이미지가 함축되어 있다.

포천시와 연계한 지역특화 사업으로 승화하여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푸른 도시의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가족계열화 사업을 통한 균일한 품질을 원료육으로 사용하여 고품격 '미트빌' 브랜드를 통해 객관적으로 고객에게 신뢰를 받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발전의 이바지에 큰 의미를 둔다.

우선 포천시는 가축의 사육두수가 돼지 약 25만두, 닭 약 5백만수, 낙농 약 1만 8천두로 축산기반이 강하고, 농복합시로 전국에서도 상위권의 축산규모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지역이건상 축산규모만큼 축산의 관련 조직 역시 인근 타 시·군에 비해 많으며 축산관련사업에 대하여 성장할 수 있는 이권이 조성되어 축산관련단체, 도축장, 도계장, 수의사회 등 축산인프라가 타 시·군보다 월등·우월하다.

이러한 제반의 유리한 이권을 바탕으로 '미트빌' 육가공 공장을 포천지역 특화사업으로 승화시켜 포천의 자랑스러운 사업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축산발전에 기여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으로 포천의 축산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포천에 위치한 도축장(포천농축산대표 김녕규)에서 육가공장까지 전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현대화 설비를 구축하고 돈육과 한우는 물론 육우까지 원료육의 상품을 다양화하여 고객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한편, 인근의 농·축협과 연계한 육가공사업을 실시하여 협동조합간 협동체제를 구축하는 방위적 의미의 사업을 추구할 것이다.

2003년부터 지역특화사업 선택형 맞춤형 경영의 사업계획에 의거 총 투자액의 상당부분을 경기도와 포천시로 부터 지원받고 일정액의 자부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온 포천축협에서는 2002년부터 경제사업 등장기 계획에 의해,

셋째, 사료사업을 중점 투자하여 현재는 OEM 방식으로 포천축협이 자체 독자 개발한 사료 배합기술을 활용한 자체 사양프로그램을 만들어 양육농가에 제공해주고있고,

둘째, 사료사업을 바탕으로 한 가족제일화 사업을 농가가참여하도록 실시하여사료제품및 관리의통일, 나아가 종축까지 일관화함으로써 축산물 브랜드에 걸맞는 고급화된 원료육을 생산할것이며

셋째, 냉장 유통을 기본으로 한 제품의 다각화(조미육, 가공육 등), 축종의 다양화로 타 육가공제품에 상대적인고급화 및차별화 전략구축을 목표로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특화된 포천축협의 육가공사업은 최근 FTA나 수입육확대등우울한소식으로수심에 찬포천의 양육가에게 희망의메시지를줄것이며, 포천축협 및양육가의 노력으로경기도가아닌 우리나라국가대표급 브랜드로 거듭나는 것도 그리 먼 훗날만의 일은아닐것시다.

